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美 경제지표 호조에도 국채 수익률 하락한 이유는?
- ◇ (초점)-5 월 규제 강화에도 여전한 '기일물 RP 활용 장벽'..내년 4 월이 기대되는 이유
- ◇ (칼럼)-'금통위에 뭔가 있었나'..RP 용 채권·3 년물 금리 놓고 혼선 키운 한은 총재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내려진 영업중단 명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가운데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로이터/구글할모 망기아페인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4월16일 종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116.3	0.4%	-2.7%	+6.5%	유로	1.1983	0.7%	-1.9%	+8.9%
100엔 대비	1,026.2	-0.4%	2.5%	+1.1%	엔	108.77	0.8%	-5.1%	+5.2%
유로 대비	1,337.9	-0.3%	-0.9%	-2.3%	위안	6.5216	0.5%	0.1%	+6.7%
위안 대비	171.20	-0.1%	-2.8%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4,200.67	1.2%	11.7%	+7.2%
코스피	3,198.62	2.1%	11.3%	+30.8%	나스닥	14,052.34	1.1%	9.0%	+43.6%
코스닥	1,021.62	3.3%	5.5%	+44.6%	S&P500	4,185.47	1.4%	11.4%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95.84	1.2%	5.1%	+19.8%
국고채 3Y	1.154%	-1.4bp	17.8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582%	0.4bp	24.7bp	-14.5bp	미국채 2Y	0.163%	0.4bp	4.2bp	-144.0bp
국고채 10Y	2.023%	-0.6bp	31.0bp	+3.0bp	미국채 10Y	1.590%	-7.2bp	67.8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63.13	6.4%	30.1%	-20.5%	한국 5Y	21.1bp	-0.8bp	-0.9bp	+0.1bp
금(현물)	1,776.31	1.9%	-6.4%	+25.0%	일본 5Y	16.3bp	0.2bp	1.3bp	-4.5bp
TR상품지수	2,797.81	3.6%	4.4%	+7.8%	중국 5Y	34.5bp	-3.2bp	6.5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국내 주요 주간 일정

<4월 19일(월)>

- 국회 대정부 질문
- 한은, 3월 거주자외화예금 동향(12:00)

<20일(화)>

- 국회 대정부 질문
- 기재부, 1차관 거시경제금융회의(08:00)

<21일(수)>

- 한은, 3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기재부,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07:30)
- 관세청, 4월 1-20일 수출입 동향

<22일(목)>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10:00)
- 금감원,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4:00)

<23일(금)>

- 한은, 1분기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06: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4월 19일(월)>

- 일본, 3월 수출입 (08:50)
- 일본, 2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유로존, 2월 경상수지 (18:00)

<20일(화)>

- 중국, 4월 대출우대금리 (10:30)

<21일(수)>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캐나다 은행, 금리 발표 · 통화정책보고서 발행(23:00)

<22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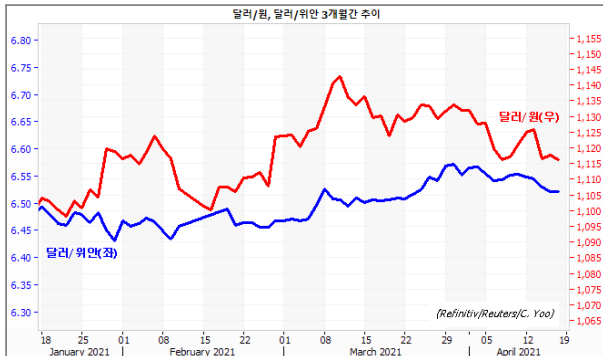
- ECB, 통화정책회의 결과 발표(20:45), 기자회견(21:3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3월 전미활동지수 (21:30)
- 미국, 3월 기존주택 판매 (23:00)
- 유로존, 4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23:00)
- 미국, 캔자스시티 연은 제조업지수 (자정)

<23일(금)>

- 일본,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8:30)
- 일본, 4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유로존, 4월 마켓 제조업 · 서비스업 PMI 잠정치 (17:00)
- 미국, 3월 건축허가 (21:00)
- 미국, 4월 마켓 제조업 · 서비스업 PMI 잠정치 (22:45)
- 미국, 3월 신규주택 판매 (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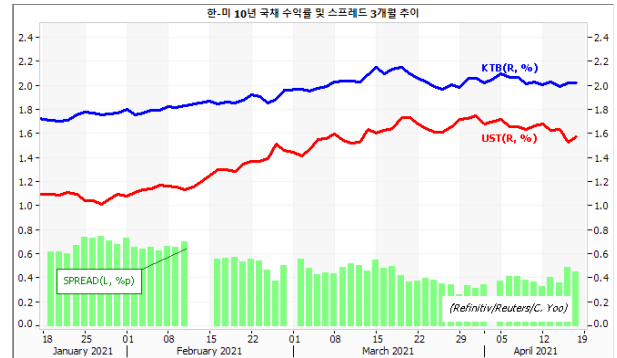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에도 주요 상장기업의 배당금 지급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는 만큼 달러/원 환율은 관련 수급을 주목하면서 등락할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105-1125 원이다.
-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되고 달러도 상승 압력이 둔화돼 배당 역송금 수급에 대한 민감도는 다소 낮아졌다. 오히려 이같은 이벤트성 수급으로 환율이 반등하기를 기다리는 고점 대기 매물이 만만치 않다.
- 주간 기준 5 주째 하락한 환율은 상승 변곡점을 돌아 이제는 아래쪽 추세를 저울질 중이라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 이번 주 관세청이 발표하는 이달 20 일 기준 수출입 잠정치 결과를 통해 건조한 펀더멘털이 확인될 경우 원화의 강세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인될 경우는 더욱 그렇다.
- 배당금 재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외인 순매수 규모 그대로를 원화 강세 요인으로 대입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근 달러/원 상단이 지속적으로 늘리는 흐름을 감안하면 환율의 일시적인 박스권 하단 시도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 다만 분산 송금 측면에서 환율 반락 때마다 배당 역송금 수요가 유입될 수 있고, 달러/원 1110 원 하향 이탈시 1100 원 공방이 다음 시나리오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경계감 속에서 저점 매수세가 하단을 떠받칠 여지도 있다.
- 이번 주중 유럽중앙은행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주도할 이벤트로 꼽히지는 않고, 크게 주목할 만한 대외 지표도 별로 없다.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국고채 장기물 입찰과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매 동향에 연동하며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75% 수준에서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국내 금리도 큰 폭 반락했다. 하지만 국고채 3년물 1.1%, 10년물 2%를 하향 돌파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 지표 회복세가 뚜렷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매파 시그널이 나온 것 역시 시장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 물론 일부에선 미국의 금리 급등세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매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 국내 기관들은 여전히 위험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이들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지속적인 국채 선물 매수세가 확인돼야 하고, 글로벌 경기 추세의 전환이 확인돼야 한다.
- 지금은 커브상 다소 과도해 보이는 구간으로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 정도다.
- 주초 국고채 입찰을 전후로 약세 흐름을 보인 후 주중에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등락하는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초점)-美 경제지표 호조에도 국채 수익률 하락한 이유는?

뉴욕 (로이터) -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자 1 분기에 겪었던 채권 투매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 참가자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뉴욕 시장에서는 간밤 3월 소매판매가 예상을 크게 뛰어넘고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준 것으로 발표됐지만, 미국 국채 수익률은 11월 12일 이후 하루 최대 폭 하락을 기록했다.

보통 경제지표 호조 발표 이후에는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높여 채권에 대한 투자 유인은 약해지고 수익률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4월에만 20bp 가까이 하락해, 지난 2-3월 급등분을 일부 반납했다. 이에 성장주와 기술주 랠리가 힘을 받으면서 주요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10년물 수익률은 15일 1.528%로 1개월 만의 최저로 떨어졌다.

파이퍼센들러의 저스틴 후겐도언 이사는 "오늘 국채 움직임은 분명 예상과 반대였다"면서 "3월 소매판매가 9.8% 늘어 (채권) 매도가 확실해 보였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날 수익률이 하락한 이유로 계속되는 국채 포지션 숏 커버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안전자산 매수세,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수요 증가 등을 제시했다.

넷웨스트마켓츠의 존 브릭스 글로벌 전략 헤드는 올 초 수익률 상승을 가리키며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강력한 경제 반등을 가격에 전부 반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면서 "우리는 이제 매도세가 다소 안정되고 시장에 수요가 일부 돌아오는 지점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투기세력들은 지난 6일까지 한 주간 30년물 선물에 대한 순 숏포지션을 축소했고, 10년물에 대한 포지션은 숏에서 롱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뉴라이프에셋매니지먼트의 척 톰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는 반드시 경제지표가 채권을 움직이는 게 아님을 보여준다. 포지셔닝과 매수자 쪽의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다카다 마사나리 노무라 거시 전략가는 미국 국채 시장의 거래에서 '궤도 수정'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팀의 모델을 이용한 예측에 따르면 펀더멘털 중심의 글로벌 매크로 헤지펀드들은 이미 미국 국채에 대한 순숏포지션을 모두 정리하고, 순롱포지션쪽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MO의 스콧 킴볼 미국 채권 헤드는 지난 6개월간 증시가 대대적인 랠리를 보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긴장 고조도 국채시장으로 일부 안전자산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재정 부양책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또 일본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요 증가를 언급했다. 일본에서는 4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에 앞서 이미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도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끝냈다.

캐피탈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로버트 시어스 CIO는 연초 수익률 상승으로 높은 수익에 이끌린 매수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 "수익률에 목마른 오늘날 수익률이 조금만 올라도 투자 매력은 다시 올라간다"고 말했다.

(초점)-5월 규제 강화에도 여전한 '기일물 RP 활용 장벽'..내년 4월이 기대되는 이유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금융당국의 현금성 자산 의무보유제도가 5월부터 한층 더 강화되지만, 정책효과로 기대됐던 기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활성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여전히 기일물 RP 매수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RP 매도자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감수하기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여전히 선호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추가로 강화되는 유동성 규제에 더해 내년 4월부터 머니마켓펀드(MMF)의 잔존만기 한도 축소 조치가 시행되면 기일물 RP 활용도는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RP 규제 시행에도 기일물 거래 비중 큰 변화 없어

금융당국이 RP 기일물 거래 비중을 늘리겠다는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달라진 RP 유동성 규제를 본격 시행했는데도 시장의 RP 익일물 거래 선호 관행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8월부터 익일물 RP 매도자들은 조달금액의 1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기일물 거래를 늘릴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0년 단기금융시장 리뷰'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체 RP 거래액 중 기일물 거래 비중은 3.9%에 그쳐 2019년(3.5%)보다 0.4%p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익일물 거래 비중은 93.6%로 2019년의 94%보다 0.4%p 줄었다.

전체 RP 거래액 중 기일물 비중은 유동성 규제 시행 전인 3분기에 3.8%였다가 4분기에 4.2%로 소폭 늘었을 뿐이다.

시장에선 증권사 등 RP 매도자들이 기일물 RP 거래보다는 CD 등 현금성 자산 보유를 늘려 금융당국의 유동성 규제에 대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일물 RP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10~15bp 높은 수준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활용도를 낮추는 요인이다.

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한국은행이 느슨한 지급준비금 관리를 하면서 익일물 RP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많이 낮은 수준에 움직이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기일물 RP 금리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안정적인 지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은행들이 여전히 기일물 RP로 자금을 돌리는 걸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한은이 시중 유동성 공급을 늘리며 지준관리를 느슨하게 해주고 있음에도 은행들의 이같은 자금 운용 행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분기말, 연말에는 은행뿐 아니라 자산운용사들도 RP로 자금을 돌리는 것을 주저해 기일물 RP에는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지금 동안채 3개월 금리가 0.4%까지 내려가도 3개월 CD 금리는 0.75%고 기일물 RP 금리는 0.6~0.65%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며 "시중에 유동성이 많으면 단기금리가 빠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루짜리 금리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채, 동안채를 담보로 하는 기일물 RP 금리가 너무 높다는 인식이 있다"며 "이 때문에 유동성 규제에 대응해 프랍계정은 차라리 채권 보유를 줄여 선물이나 스왑으로 돌리고, 채권을 사야 하는 곳들도 기일물 RP를 하는 것보다는 양도성예금증서(CD) 같은 현금성 자산을 사는 걸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5월 유동성 규제 강화 효과 한계..내년 MMF 규제 전환점 될 수도

다만 5월부터 익일물 RP 조달 금액의 20%까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도록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증권사 등의 익일물 거래 관행에 일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기존에 익일물 RP로 자금을 조달했을 때보다 추가로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기일물 RP 활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일물 RP 매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거래 패턴이 정책당국의 기대만큼 달라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기일물 RP 거래가 늘어나려면 역설적으로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사정이 해소되고 단기자금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B 은행 자금운용부장은 "지금은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고 한은이 유동성 리스크를 다 책임져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익일물 RP로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은행들이 지준 때문에 기일물 RP 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RP 매도자들도 웬만하면 익일물 RP 를 사용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금성 자산 보유규제가 강화돼도 기일물 RP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RP 시장의 수급불균형은 내년 4 월부터 도입되는 MMF 규제로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국채, 통안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법인형 MMF 의 보유채권 가중평균 잔존만기는 내년 4 월 1 일부터 현행 75 일에서 60 일로 축소된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기일물 RP 자금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다.

C 자산운용사 채권매니저는 "은행들은 분기말이나 연말 같은 주요 시점엔 아예 RP 자금 운용을 중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때문에 시장에는 단절이 생기고 기일물 RP 에는 프리미엄이 붙고 그 프리미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은 쉽게 기일물 RP 를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4 월부터 MMF 잔존만기가 75 일에서 60 일로 줄면 그만큼 운용사가 운용해야 하는 현금이 늘게 된다"며 "MMF 들이 현금을 수익률이 떨어지는 1 일물로 돌리기보다 만기 7 영업일 이내 자산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기일물 RP 공급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금통위에 뭔가 있었나'..RP 매각 대상채권-3년물 금리 놓고 혼선 키운 한은 총재

(※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평소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답지 않은 모습이였다. 뭔가 발언이 계속 꼬였다. 15 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 이야기다.

물론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자신하면서 아직 완화적 통화정책을 전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다 보니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맥락상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RP 매각 대상 채권 필요 없다는 발언에 드는 의문

먼저 RP 매각 대상 채권 확충에 대한 이 총재의 발언이다.

이 총재는 이날 "현재로서는 통안증권, 통안계정을 통해 유동성을 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서 RP 매각 대상 국채 확대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총재의 답변을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1 일 7 일물 RP 매각에는 145 조 4 천억원이 응찰해 27 조 5 천억원이 낙찰됐다. 응찰액과 낙찰액 모두 초유의 숫자다. RP 매각 규모는 평상시보다 10 조원 가까이 늘었다. 응찰액이야 시중은행들이 낙찰률을 계산해 5 배 정도 높게 썼을 가능성을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한 숫자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왜 RP 매각 규모가 이 정도로 늘었나?

3 월에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고 국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온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채 발행 축소 결정이 나비효과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이 통안채 2 년물 발행을 줄이고 만기가 짧은 RP 매각, 통안계정 입찰을 통한 공개시장 운영을 늘리면서 은행들이 관리해야 할 자금 규모가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다.

은행들 입장에서선 운용할 자금이 그만큼 늘었는데 순이자마진(NIM)에 대한 부담 때문에 통안계정 등에 자금을 예치하는 것은 꺼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잉여가 늘었다. 이번 반월에 지준이 대규모 잉여로 마감되며 단기금리가 급락한 것은 그 때문이다.

3월 수준은 아니겠지만, 한은이 매년 통안채 발행 규모를 줄여온 것도 사실이고 안팎으로 발행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왜 이 총재는 지금 시점에 RP 매각 대상 채권 확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일까?

통안채 3년물 발행 추진 문제 역시 지난해와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물론 실무진에서 언제든 통안채 3년물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 작업 등 실무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내부 추진 동력의 문제다.

기획재정부가 연중 지속되는 국고채 입찰 물량 소화를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시점에 통안채 3년물 발행을 추진하는 게 좋은 반응을 얻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 국고 3년 금리 누앙스 변화..완화 시그널 주지 않으려는 총재

이 총재의 이날 발언 중 시장에 가장 큰 혼란을 준 것은 국고채 3년물 금리와 관련한 것일 듯하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기자 간담회 당시 "국채 3년물과 기준금리 간 차이가 과거 10여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평균치와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이 단기금리 안정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물론 글로벌 금리 상승 때문에 이 총재의 발언 당시 1% 내외였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월 중에 1.3% 수준까지 올랐다가 현재 1.1%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이 총재의 발언에서 2월 금통위 기자 간담회 당시의 누앙스는 찾기 어려웠다. 이 총재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외국인들의 국채 선물 매도 영향에 상당폭 상승했다"며 "그러나 은행 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코픽스, CD 90일물, 1년 이하 단기 금리는 큰 변동 없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3년물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단기금리는 안정적이라 큰 문제 없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 단기금리 안정은 한은의 통안채 발행 축소 등 시

장 안정 노력과 대규모 단기자금 잉여 등의 결과라는 점, 3년물 금리와 단기금리는 사실 떼어놓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생각하면 역시 혼란을 주는 언급이다.

결론적으로 이날 이 총재는 채권시장에 완화적 시그널을 주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도 '인플레이션은 문제없다'며 추가적인 당근을 제시하지 않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스탠스와 겹치는 부분이다.

어찌 보면 연준이나 한은이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이 나쁠 게 없다.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이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는 전제에서는 자연스러운 금리 상승이 역시 과도한 자산가격 상승 등을 자연스럽게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금통위에 강성 매파 있었다..의사록 확인해야

이날 이 총재의 발언에 혼란을 느낀 것은 금통위원들 스탠스가 조금씩 엇갈리고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총재는 이날 발언 중 "금통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금융 불균형에 대해 우려했다"는 언급을 두 차례나 했다. 정황상 금통위원 중 일부가 금융 불균형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시장에서 커지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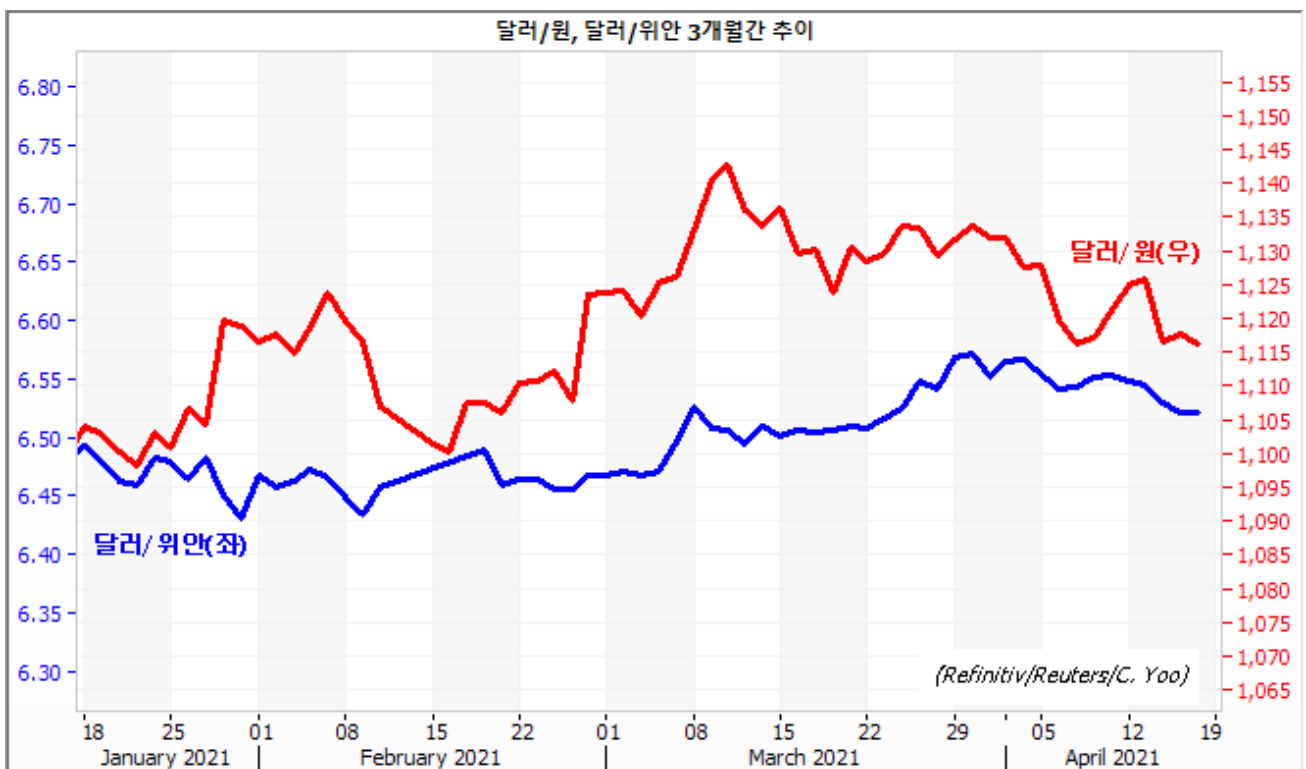
이전 금통위 의사록을 되돌아보면 금융 불균형 심화는 결국 현재의 완화적 정책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직결된다. 완화적 정책 기조가 결국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시장 참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일부 금통위원이 조금씩 목소리를 높여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날 이 총재의 기자 간담회 발언이 평소처럼 물 흐르듯 이어지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일단 4월 금통위 회의 의사록을 기다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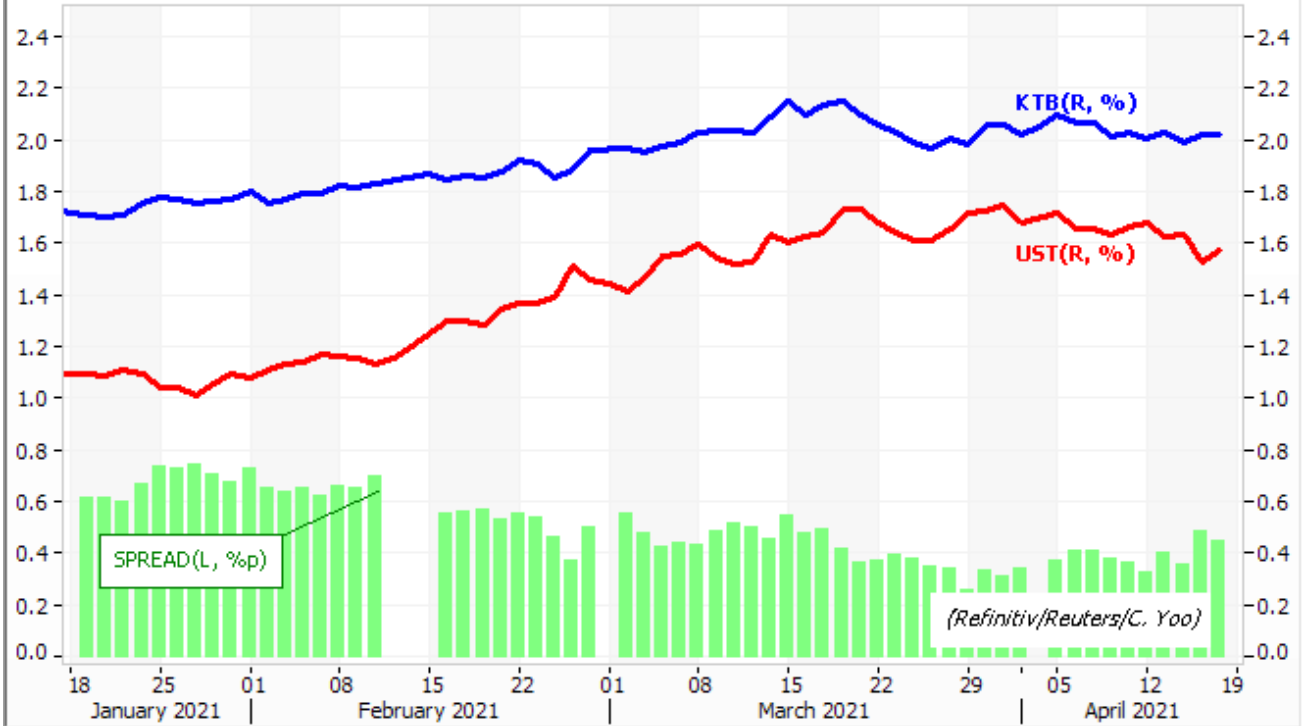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한-미 10년 국채 수익률 및 스프레드 3개월 추이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